

대학에서의 도서관교육과 과제

Rethinking User Education in Academic Libraries

장 덕 현(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III. 대학도서관교육의 비판적 이해 |
| II. 대학에서의 도서관교육 | 1. 대학교육과 비판적 사고 |
| 1. 정의 | 2. 교육의 내용 |
| 2. 대학도서관교육의 동향 | IV. 도서관교육의 정치학 |
| | V. 결론 |

I. 서론

고전읽기는 언제나 좋은 출발점이 되어주곤 한다. 특히 문헌정보학 분야와 같이 학문의 내용과 범위를 관통하는 변화의 폭이 적지 않았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내/외부의 환경이 변화할수록 과거에 축적된 지식으로부터 동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시야와 언어를 뛰어넘는 통찰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에 관한 연구서로서 가장 잘 알려진 고전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대학도서관(The University Library)*의 저자인 윌슨과 타우버는 이 책의 서두에서 대학의 기능을 1)지식과 사상의 보존, 2)교육, 3)연구, 4)출판, 5)사회봉사, 그리고 6)연구결과의 사회적 적용과 해석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이 가운데 어떠한 기능도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이 기능들이 통합적으로 하나의 과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

고 있다.¹⁾ 대학도서관의 중요성은 이러한 대학과정(university process) 전체에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²⁾ 굳이 “대학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서구의 많은 대학들이 개인의 장서로 구성된 소규모 도서관을 그 설립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20세기에 들어서 복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대학교육의 질적, 양적 팽창에 대학도서관의 발전이 주요한 동인의 하나로 작용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발전과 성장에 이렇게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역사적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대학도서관이 단순히 대학의 연구-학습과정을 보조하는 “부속기관”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복합적 존재로서의 대학(university)은 캠퍼스에 존재하는 많은 구성체들이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존립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포괄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없이 이 구성체들의 기능은 교육과 연구라고 하는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조직이나 기관이 대학 내에서 보다 의미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교육-연구에 참여하며 일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교육에 있어서 대학도서관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도서관교육이라는 화두를 빌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윌슨과 타우버는 이에 관하여 “대학도서관의 가르치는 기능(The Teaching Function of the University Library)”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³⁾ 말하자면 대학도서관 스스로가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대학도서관은 단지 대학 내에 존재하는 많은 “부속기관”들 가운데 하나로 존재할 뿐이며, 이러한 역할만으로 대학도서관이 대학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학에서의 도서관교육을 이야기할 때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학도서관은 가르치는 기관(teaching institution)”이라고 하는 단순한 명제이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짧은 명제에 내포되어 있는 함의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대학도서관이 단순히 대학과정을 보조하는 부속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대학의 교육 기능을 분담함으로써 캠퍼스 내에서 능동적

1) Louis Round Wilson and Maurice F. Tauber. *The University Library: Its Organization, Administration, and Func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5: 9.

2)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울, 1995: 149.

3) Wilson and Tauber: 382

주체로 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II. 대학에서의 도서관교육

1. 정의

대학도서관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 중 교육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대학도서관은 이미 교육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으며, 대학 내의 다른 부속기관들에 비하여 보다 우수한 자질을 지닌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 있어서의 도서관교육은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들을 능동적인 도서관 이용자들로 교육하는 과정을 총칭한다. 내용적으로는 기초적인 도서관견학에서부터 구조화된 워크숍이나 강의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용자들이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고 도서관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도서관교육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나 주로 서지교육(bibliographic Instruction: BI), 도서관이용자교육(library user education/ instruction), 또는 도서관지도(library instruction) 등이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이 글에서는 용어사용의 통일을 위하여 이 모든 개념들을 “도서관교육”이라는 용어로 포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정보학용어사전*은 “이용자교육”을 “도서관 서비스, 시설, 조직, 자료 및 자료검색 방법에 대하여 이용자를 교육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⁴⁾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도서관협회는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서 “User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도서관 봉사, 시설, 조직과 도서관 자료 그리고 검색전략에 관한 내용을 지도하기 위하여 조직된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참고자료 사용법, 도서관이용법, 서지교육(BI)이 이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⁵⁾

4) 사공철 등편, *도서관학·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162.

5) Hearstill Young ed.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3: 237.

2. 대학도서관교육의 동향

도서관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서관서비스의 전면에 떠오르게 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다. 2차 대전이후의 대학커뮤니티의 성장에 따라 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자료의 양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도서관 서비스의 내용과 조직이 복잡해 지면서 도서관교육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것이다. 그런 연유에서이지 지난 수십년 동안 도서관이용교육의 초점은 도서관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데 맞추어져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넘치는 정보/자료의 홍수 속에서 적절한 정보를 찾는 기술과, 찾아낸 정보를 평가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에 집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학도서관이용자 교육은 다양한 스펙트럼 하에서 실행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대학도서관이용자 교육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1)인쇄물 안내자료/ 온라인 안내자료(help guide)
- 2)온라인 자습(online tutorials)
- 3)정보검색용단말기(information kiosk)
- 4)도서관견학(library tours)
- 5)참고데스크에서의 1대1 교육
- 6)연구조사상담시의 교육
- 7)방문 온라인목록실습(drop-in OPAC training)
- 8)1회 수업
- 9)특정주제중심의 교과목통합 교육
- 10)학점과목으로 개설되는 도서관이용교육⁶⁾

이처럼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교육은 단순한 안내책자나 이용안내 팸플릿에서부터 정규과목으로 개설되는 교양 교과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를 위하여 최근 몇 년 동안 각 대학과 대학도서관들이 이용자교육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교육의 구체적 프로그램들을 고안하여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메일링리스트와 몇 곳의 국내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나타난 도서관 이용교육의 대략적인 유형

6) 박운자. 정보원과 정보이용.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0: 19-26.

을 살펴보면, 국내 대학에서의 도서관 이용교육은 “정보검색교육”, “학술정보이용교육”, “도서관이용교육”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 매학기 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이용 안내책자 배부,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도서관 견학.
2. 학기초에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간 규모 그룹교육
3. 대학원생 또는 교수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비정기 소규모그룹 교육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온라인 목록 이용법을 위주로 도서관 자료 이용법⁷⁾, CD-ROM 자료 이용법, 국내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이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교육을 수행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학에 따라서 별도 제작된 도서관홍보/이용자교육용 영상매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외에 교수와 대학원생 등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학술 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은 수시로 공급업체(vender)의 교육담당자가 방문하여 교육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아주 최근에 도서관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도서관의 경우는 학과별로 수업시간중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방문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에 학위논문작성법 등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정규교과로 편성된 도서관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975년 서강대학교에서 최초로 정규과목으로서의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한 이래 “문헌정보이용법”, “문헌이용법”, “문헌자료조사법”, “도서관문헌이용법”, “연구와 문헌조사”, “문헌정보이용법”, “학술연구조사방법론”, 그리고 “인터넷과 정보자원의 활용” 등의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Ⅲ. 대학도서관교육의 비판적 이해

-
- 7) 도서관이용안내는 구체적으로 도서관에 관한 개관적 설명, 도서관자료의 구성, 자료실의 기능과 위치 안내, 자료의 입수과정, 자료검색방법, 자료신청, 예약 및 대출안내, 리포트 작성시 도서관 자료 활용법, 도서관 이용 규정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대학교육과 비판적 사고

대학도서관의 목적은 대학구성원들의 교육과 연구 과정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대학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과 보다 광범한 다른 분야의 지식을 함께 섭렵하고,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타인의 사고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을 기르며, 자연현상, 사회현상, 그리고 인류문화에 대한 명확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⁸⁾ 그러나 이러한 대학교육의 목표가 최근 들어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 속에서 많은 대학들이 이러한 본질적 목적과는 동떨어진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⁹⁾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고력을 갖도록 하는 노력은 방기하고 단순히 직업훈련만 시키고 있다고 하는 블룸의 비판은 이미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¹⁰⁾

대학도서관의 주이용자층인 대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할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대학생활을 시작한다. 그러고는 대학에 머무르는 동안 아무런 지적 도전(intellectual challenge)에 노출됨없이 직업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만을 통과해 나간다. 교수들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아 개인적인 경험만으로 도서관과 관련분야의 정보자원을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¹¹⁾ 김정근은 이러한 현상을 우리 대학사회를 흐르는 지식생산 활동의 구조적 취약성, 소피스티케이션의 불철저성, 교수-학습방법의 원시성의 문제로 보고, 이러한 문제의 근저에 학습/ 학술자료시스템의 미개발 문제가 놓여있다고 주장한다.¹²⁾

전통적으로 대학도서관이 다른 기관들과 같이 대학 내의 교육을 분담하는 수단은 도서관교육을 통해서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이러한 도서관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서관계나 문헌정보학계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기회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주변에 대학 내의 학과, 대학원, 또는 언어교육원 등과 같은 수준

8) Derek Bok. *Higher Lear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54.

9) Bok: 38.

10) Allan Bloom.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New York: Simon & Schuster, 1987.

11) Bryn Geffert and Beth Christensen. "Things They Carry: Attitudes toward, Opinions about, and Knowledge of Libraries and Research among Incoming College Students," In: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37(1998) : 282.

12) 김정근: 149-50.

의 교육단위로 인정받는 대학도서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가르치는 기능을 보조해 주는 “부속기관”일 뿐 그 스스로가 가르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학습/학술자료시스템에 드리워져 있는 미개발의 그늘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대학의 기본(fundamental)을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학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건강한 비판의식을 가진 시민을 양성해 내는 것이며 이는 지식과 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독서와 토론의 필요성을 증진시키며,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독서와 토론의 장으로서 대학교육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주요 도구가 되며, 따라서 도서관교육은 대학에서의 학습과정에서 필수적인 또 하나의 “교육”이 되는 것이다.

2. 교육의 내용

이른바 대학교육의 위기는 대학도서관에도 대처하기 쉽지 않은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동안 도서관교육의 내용은 주로 특정 전공분야 자료의 활용법을 가르치는데 치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주로 검색기법에 대한 훈련에 치중하는 이러한 방식은 대학도서관 전산화가 본격화된 1970년대 이래 교육의 편이성, 적용성, 시의성 등의 이점 때문에 도서관이용교육에 있어서 주류를 형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¹³⁾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만으로 대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아울러 도서관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실제로 대학도서관 현장에서도 현재의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에서 나타나는 피상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밀러에 의하면 지난동안 도서관교육(bibliographic instruction)은 현대 미국 문헌정보학이 생산해낸 가장 성공적인 개념이라 할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다.¹⁴⁾ 그러나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나타난 도서관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따라 독서기술, 참고자료에 대한 이해, 자료에 대한 평가기술 등을 위주로 하던 전통적인 도서관교육의 개념은

13) Virginia M. Tiefel. “Library User Education: Examining Its Past, Projecting Its Future,” In: *Library Trends*, 44(2): 323.

14) William Miller. “The Future of Bibliographic Instruction and Information Literacy for the Academic Librarian.” In: *The Evolving Educational Mission of the Library*. Betsy Baker and Mary Ellen Litzinger ed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2: 140.

한계에 이르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단순한 서지교육의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전통적인 읽기능력(literacy)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인 정보이용력(information literacy)의 개념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정보이용력을 길러주는 것을 도서관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그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정보이용력은 한마디로 정보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리터러시가 전통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정보리터러시는 정보자원을 검색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입수한 정보의 신빙성, 질,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여 문제해결 과정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¹⁵⁾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매체의 변동에 따라 일반화된 전자매체의 운용능력은 정보이용력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조건들 가운데 하나일 뿐 그 동의어는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연구들의 주장처럼 정보이용력을 기르는 교육이 그 이전의 도서관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로운 교육적 장치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그 근거를 확보할 수 없다. 오히려 여전히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놓고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정보이용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오히려 앞으로 계속 변화할 도서관 환경을 고려한 도서관교육이 되려면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외에 정보를 왜 찾아야 하며, 찾은 정보를 어떻게 평가하며, 정보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그리고 그 정보들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사고(critical understanding)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교육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대학교육에서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도록 하는 문제가 많은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교육에 있어서의 궁극적 목표로서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데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보우디는 중요한 것은 대학도서관 사서가 학생들에게 정보를 찾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사서가 어떻게 더 강화하고 보충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⁶⁾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사서가 학생들이나 교수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15) Patricia S. Breivik and E Gordon Gee. Information Literacy: Revolution in the Library. New York: MacMillan, 1989: 40-1.

16) Sonia Bodi. "Critical Thinking and Bibliographic Instruction: the Relationship." In: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4(1988): 151.

는 설명이다.

맥에담은 대학에서의 도서관교육의 목적은 정보운용력(information literacy)을 길러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수용력(cultural literacy)¹⁷⁾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그 도구는 다름 아닌 책임기라고 주장한다.¹⁸⁾ 독서야말로 비판적 사유에 이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대학생들을 독서로 인도하는 것이 도서관교육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독서는 대학생의 지적 활동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정보시대에 있어서도 이러한 역할은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대학도서관의 주이용자층인 대학생들의 사고와 성향에 대한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전자매체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으며, 텍스트보다는 영상문화(image culture)에 친밀감을 느낀다. 그들의 사고는 구조적, 선형적(non-linear), 합리적인 것들에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사서와 이용자층과 사고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그들을 유인하는 것도 사서의 몫이다.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하여 이용자층의 성향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리고 도서관 외부로 도서관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시도 등을 통하여 도서관교육의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겠다.¹⁹⁾

IV. 도서관교육의 정치학

모든 “예측”이 그러하듯이 도서관교육의 과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과 대학 내에서 도서관의 위상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거론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도서관교육은 일면 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서관 이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활동이며, 따라서 도서관 이용을 매개로 하지 않는 도서관교육은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 커뮤니티 내에서 대학도서관이 부속기관 또는 학문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대학도서관

17) Eric D. Hirsch, Jr. et. al. Cultural Literacy :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Boston, MA: Houghton Mifflin, 1987.

18) Barbara MacAdam. "Sustaining the Culture of the Book: The Role of Enrichment Reading and Critical Thinking in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In: Library Trends, 44(1995): 241.

19) Bruce Harley, et. al. "The Postmodern Condition: Students, the Web, and Academic Library Services." In: Reference Services Review, 29(2001): 26.

스스로가 가르치는 기관으로 존립하여야 한다는 당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은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 이미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일반화되어 있고, 도서관교육에 관한 연구성과들 또한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 나온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 관련 연구들을 대별하여 보면 이제까지의 전형적인 도서관 이용교육 관련 연구들이 이용자 교육의 유형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양 과목으로 이용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오리엔테이션 때 교육을 실시하는지, 또는 교육대상이 학부생인지 대학원생과 교수진인지 등, 그리고 주제분야에 따라 어떠한 교육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사례보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²⁰⁾

이러한 경향에 최근에 더해진 또 하나의 흐름은 새롭게 부상하는 전자도서관의 개념과 함께, 중개자 없이 이용자가 직접 시스템에 접근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환경에 있어서 정보운용능력을 가진 이용자를 길러내는 것이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교육이라는 주장이다.²¹⁾ 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관이용교육의 변화를 주장하는 이러한 연구들은 전자매체를 이용한 도서관이용교육에 대한 방법적 고려, 그리고 전자자료에 대한 도서관이용교육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도서관 이용교육에 신기술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그 예로서 웹기반 도서관이용교육 체제의 편성이라든지 시청각 교재 사용, 그리고 이용자 스스로가 웹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개별학습 시스템 개발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학문의 세분화”를 외부 환경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들면서 새로운 환경의 등장에 따른 도서관교육의 변화를 역설하고 있다.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보자료의 양과 질에 나타난 변화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정보탐색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필요를 증대시켰다. 따라서 단순히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종류와 그 사용법을 교육하는 차원에서의 도서관교육에서 벗어나, 정보운용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한다. 도서관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도서관

20) Ann M. Klavano and Eleanor Kulleseid. "Bibliographic Instruction: Renewal and Transformation in One Academic Library." In: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61(2000): 360.

21) Kappa Waugh. "From the Nightmare...to the Dream" In: The Reference Librarian, 51/52(1995): 233.

이용능력이며, 따라서 “대학에서의 도서관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런데 과연 도서관인들만이 아닌 대학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한 주장에 공감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도서관이 대학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이용교육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²²⁾

문제는 관련 연구들에서는 도서관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도서관교육의 내용과 범주도 변화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방향을 취하기 이전에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매체의 변동에 따른 프로그램의 변화보다는 대학도서관의 가르치는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믿기 때문이다. 매체와 관련된 변동은 매우 중요한 변화임에 틀림없지만, 정보화에 대한 연속론자(continuist)들의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도서관교육의 본질은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지 정보의 가공형태나 운반도구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도서관교육은 도서관의 자료와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교육시키는 것이며, 사서의 역할은 잠재적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유도하고, 도서관내에서 그들이 관련활동을 불편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도서관이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도서관교육은 대학도서관 사서가 이러한 역할을 넘어서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teacher)”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도구이다. 따라서, 사자에게 도서관교육이 지니는 의미는 사서의 주도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도서관교육의 유형 가운데 가장 좋은 형태의 교육으로 인정받아 온 것은 수업과 연계된 교육이다. 그러나 이렇게 수업과 연계된 교육에서 사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도서관교육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행사하는 주체는 사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초중등학교 도서관을 경영하는 사서들의 경우는 대부분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일정정도의 교직과목을 이수하는데, 대학도서관의 사서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사서는 “대학”도서관“교육”의 주체로서 전공분야와 주

22) Anthony J. Onwuegbuzie and Qun G. Jiao. "I'll Go to the Library Later: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Library Anxiety," In: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61(2000): 45-54.

제전문분야의 계속교육뿐만 아니라 교수법(pedagogical methodology)에 대한 이해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도서관교육은 자기개발의 기회를 통해서 사서들이 전통적으로 지녀왔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만(status anxiety)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학에 있어서의 지위(status)는 가르치는 역할과 관련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가르치거나 배우는 과정에 통합되어 있지 않는 대학의 구성원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도서관교육을 통해서 사서는 학습을 보조하는 사람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다시 인식될 수 있다. 자신의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을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도서관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으로 인식되려면 단순히 도서관이용법이나 데이터베이스이용법 등을 탈피하여 정보의 내용에 접근하고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개입하는 정보의사(information doctor)로서의 사서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²³⁾ 사실 이러한 사서상은 19세기 중반에 미국에 현대적 의미의 도서관 개념이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으로 사서가 의사나 교사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을 호전시키는 치료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사서는 좋은 책을 사려 깊게 선택하고 세심하게 제공함으로써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처방으로 삼는다. 이러한 생각은 멜빌 듀우이의 사상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말하자면, 사서 본연의 임무는 사회적으로 건전한 시민을 생산, 재생산해내는 것이며 따라서 사서는 사회사상(thought of his whole community)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²⁴⁾

V. 결 론

현재 국내의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비교적 최근에 도서관교육을 시작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 이용자들의 관심부족이나, 홍보부족, 내용부실 등의 이유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혹은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도서관계 내부에서도 주로 현장의 도서관교육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일회적이고

23) Patrick Wilson. Public Knowledge, Private Ignorance: Toward a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Westport, CT: Greenwood, 1977: 118.

24) Sarah K. Vann. Melvil Dewey: His Enduring Presence in Librarianship. Littleton, CO, Libraries Unlimited, 1978: 70

다소 피상적이기도 한 교육을 탈피해서 내용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가 조금씩이나마 시도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한편 이러한 시도를 뒷받침하고 문제해결의 기초를 제공해주어야 할 관련 연구의 부족 또한 두드러진다. 더우기 재정향(reorientation)을 위하여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많은 관련연구들은 교육의 방법 등에 주로 치중하고 있지만, 그러나 도서관교육의 문제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내용(content)일 것이므로 단순한 외장의 변화보다는 펀더멘탈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도서관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우선 분명한 것은 대학에서의 도서관교육은 독서와 비판적 사고라는 양축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대학에서 제공되는 모든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시켜 주고 폭넓은 문화수용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문화에 대한 향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며, 이를 위해서는 매체의 변동에 따른 이용자의 요구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 내는 것이 관건이 된다.

둘째, 도서관 이용교육의 중요한 고려사항 가운데 하나는 도서관교육을 통하여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유도하고 도서관에 찾아온 이용자들을 우호적인 세력으로 변화, 유지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서관교육을 통해서 이용자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도서관에 대해 실망하거나, 심지어 도서관을 멀리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 도서관교육의 기회를 통해 도서관의 지지세력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전자형태 정보원에 대한 검색기법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찾은 자료들에 만족하지 않고 그 요구가 도서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서의 역할이다. 소유의 종말의 저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가령 토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다 알 수 있지만, 실제로 농장에 가서 토끼의 부드러움을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기 전에는 배움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서관교육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본다. 그것이 실제로 서가의 책 한권을 뿜는 기쁨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퇴색된다. 가령 신입생들을 위한 독서목록을 소개하고 읽히는 것은 대학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방송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²⁵⁾

넷째, 도서관교육을 전문화하여야 한다. 대학 본부에 도서관교육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교육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학과와 도서관 사이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도서관내에서도 도서관교육의 담당 부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인원을 배치하고 그 자격을 강화하여야 한다. 도서관교육의 비전문화로 인한 혼란은 사실 서구에서도 어렵지 않게 관찰되는 현상인데, 애플렉에 의하면 미국내 대학도서관에서 도서관교육 담당 사서의 40%이상이 업무분장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소진현상(burnout)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²⁶⁾

마지막으로, 도서관교육을 통해 사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독서교육 담당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콘텐츠에 직접 개입하는 리뷰어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서 북리뷰나 웹사이트 리뷰 등은 필수적인 임무이다. 일회적 교육이 되든 교양과목(pass/fail basis)으로 이수하든,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도서관 이용교육은 사서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아서도 보다 실질적인 지식을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사서의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사서를 단순히 부속기관의 직원이 아닌 선생님으로서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학생, 교수 등, 이용자와의 상호 의견교환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며, 장기적으로는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 개정작업에 직접/간접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 능동성을 지녀야 한다.²⁷⁾

칼슨과 밀러는 도서관교육에 있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들로 비용, 교수에의 의존성, 수업지도의 어려움, 그리고 평가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²⁸⁾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들에게 있어서 “강의(teaching)”는 앞으로도 자연스러운 역

25) 비근한 예로 KBS TV의 “TV, 책을 말한다-제 23편 수능을 마친 청소년에게... 열정을 읽자”(2001. 11. 8.)를 들 수 있다. 이 방송에서는 곧 대학 신입생이 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선배들이 추천하는 책들을 통해 “사회 안에서의 자아 찾기를 시작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6) Mary Ann Affleck. “Burnout Among Bibliographic Instruction Librarian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8(1996): 165-183.

27) Henry T. Blanke. “Librarianship and Political Values: Neutrality or Commitment?” In: Library Journal, 114(1989): 41.

28) D. Carlson and R. Miller. “Libraians and Teaching Faculty,” I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5(1984): 484..

할로 존재할 것이며, 이렇게 영역을 확대해 나가지 않는다면 정보운용력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앞으로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에게 닥치는 요구는 정보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에 의해서 독서의 즐거움, 지적 자유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깨닫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대학에서의 도서관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바일지도 모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